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사업 방향과 전략

오 대 규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사업 방향과 전략

오 대 규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I. 기본방향

1. 기본정책방향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

-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증진 정책방향을 사후치료적 관리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
- 생애주기별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건강위험요인의 사전차단과 건강자조능력을 제고

최근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노력이 일반화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건강문제는 감염성질환이나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한 위협보다는 국민의 운동부족, 불균형한 영양섭취 등 생활양식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쪽으로 그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1세기 보건정책의 기본목표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 등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상존하는 건강위험요인을 줄여나감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조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할 것이다.

2. 전략목표

정부에서는 건강증진활동 및 질병예방·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전략목표를 수립,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좋은 건강습관을 갖게 하기 위한 보건교육의 강화로서 국민들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가지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건강 위해요인으로 지적되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 범국민 금연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또한 인터넷상 올바른 건강정보를 서비스하는 홈페이지를 개설, 일반에게 활용토록 하고 건강유지에 밀접한 식습관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건강한 식생활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월별로 건강증진관련 주요 주제를 1개씩 선정, 집중홍보하는 「이달의 건강 길라잡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의식을 높여나갈 것이다.

둘째,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병예방 및 관리사업의 추진이다. 보건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면서 동시에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예방사업으로서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예방 및 희귀질환의 관리를 들 수 있다.

우선 예방접종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수돗물불소화사업 등을 통해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암검진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리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면서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기본조직인 보건소와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보건사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요재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사업의 개발하고 기금규모도 늘려 보건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한다.

넷째, 목표는 장기보건목표 수립 및 보건사업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이다.

한번 잃으면 회복이 어려운 건강문제를 다루는 보건정책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전염병 예방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치중해온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인 보건목표를 수립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보건정책의 방향성, 장기목표

및 전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한다.

21세기 보건환경 및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2010년까지 국가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영역별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

그리고 정보화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용하고 강력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보건분야 정보화를 한 차원 높인다.

이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전염병 발생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DB를 구축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측을 위한 “전염병감시망”을 구축하여 7월부터는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95년부터 추진한 보건소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사업이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및 지역보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역보건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보건조직 및 법령체계의 정비이다.

보건행정의 추진체인 보건조직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효율의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금년에는 이를 과감히 개혁하여 정상화시키는 한편 관계법령의 정비가 미진했던 분야도 점검하여 연내에 마무리한다.

전염병·결핵·에이즈·기생충질환 등 질병별 법령체계의 정비를 금년중으로 완료하고, 정신보건법령 및 관련규정·제도와 구강보건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개선한다. 또한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II. '99년도 중점추진 건강증진사업

1.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 및 좋은 건강습관 형성 유도

건강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올바른 건강지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조능력을 갖추도록 기본적인 정보제공과 건강생활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전예방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건강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건강문제와 관련된 올바른 지식과 실천방법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월별로 건강실천 및 질병예방과 관련된 실천주제를 선정하여 대중매체와 민간단체를 통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질병발생후에 치료법을 알리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실천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올해에는 건강생활의 실천주제로서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서, 세계금연의 날을 계기로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금연실천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조성해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금연운동을 정착화하기 위하여 초·중·고생 및 성인 등 연령계층별로 홍보책자, 비디오테잎, 리플렛 제작·배포 등을 통해 금연교육을 강화하여 흡연율을 낮추며, 금연구역이 전 공공건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흡연관련 규제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98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전국민 영양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영양개선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지역단위별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연령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표준식단 제시, 영양상담 등의 영양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영양섭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2.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지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사업자로부터 담배 20개비당 2원의 출연금과 의료보험자 예방보건사업비의 5%인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령계층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확립 등 건강증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99.2.8개정 공포('99.8.9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사업자의 출연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부과절차 및 기준은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시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류에 대한 부담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충된 재원은 근로자, 학생, 군인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등 여타 행정부처의 건강증진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기금의 지출용도에 적합한 대형 기본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체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보건교육 홍보사업의 강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된 『보건교육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홍보에 관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술적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보건교육개발센터에서는 건강증진관련 교육·홍보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건강생활지침서, 초중고학생용 건강생활실천교본 등을 제작·배포하고, 작년에 수립된 국민건강증

진사업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교육 관련자료의 DB 구축, 건강증진정보 홈페이지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4. 구강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97. 11월에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가 신설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구강보건증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충치예방효과가 큰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불소투입기 제작설치비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까지 85개소로 확대·설치할 것이다.

또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와 학교양호교사가 협력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특히 올해에는 각급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교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기본장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구강보건상태가 정기적으로 체크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구강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구강보건 향상에 힘써나갈 것이다.

5. 지역단위 건강증진거점보건소사업 추진

국민건강증진사업을 국가관리의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교류와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방의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개개발·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소업무의 표준화, 사업조직의 개발, 인력·시설 등 자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주민대상의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98년부터 시·도별로 거점보건소를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질병예방, 건강생활의 실천, 영양개선, 구강보건, 보건교육·홍보 등 1-3개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2001년까지 3년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건의료분야의 학계 및 일선현장의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거점보건소와 해당지역의 대학교 등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운영결과를 평가·분석한 후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Ⅲ. 맺는말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고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건강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조성과 함께 보건교육·홍보 및 예방서비스 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일선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사업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되,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을 통해 중앙부처에서의 사업지원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 시책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건강한 노동력의 보존이라는 경제적인 측면 뿐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과 장애를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가발전 수준에 맞추어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마련과 더불어 국민들이 보다 오랜 기간동안 질병과 장애로부터 해방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